



◆ 미 수은, 독립영화 제작사 앞 수출영화 제작 보증지원

미 수은은 미국 기업의 영화제작 지원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고용 증진을 위해, 자국의 소규모 독립영화 제작사(independent film firms)가 제작·수출하는 4편의 영화 제작에 대하여 수출보증을 제공하였다.

미국의 독립영화 산업은 직접적인 종사 인원이 약 15만 명이며, 연간 수출규모는 약 30억 달러이다. 자체적으로 제작자금을 조달하는 메이저 스튜디오와는 달리, 독립영화 제작사는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해외 배급계약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. 미 수은은 이러한 소규모 독립영화 제작사들의 영화 제작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미국의 독립영화제작 산업을 대표하는 미국영화마케팅협회(American Film Marketing Association)의 지원을 받

아, 이른바 영화제작 보증 프로그램(Flim Production Guarantee Program)을 운영하고 있다.

이 프로그램은 제작영화의 외국배급계약을 근거로 배급계약 금액의 일정부분(영화 배급업체의 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)을 지급보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, 지원대상은 제작예산의 50% 이상이 미국 자본에 의해 투자된 프로젝트 중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해외에서 배급·판매되는 것에 국한된다.

이번 영화제작에 대한 대출은 Southern Pacific Bank의 자회사 Lewis Horwitz Organization(LHO)이 총 500만 달러 한도로 제공하며, 미 수은은 동 대출액의 90% 범위내에서 보증을 제공한다.

【워싱턴주재원】